평안감사도 저 싫으면 그만

(시편 49:1~20)

5.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6.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7.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8.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9.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10.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 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11.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12.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함이여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오늘 말씀 중심으로 <평안감사도 저 싫으면 그만>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평안감사도 저 싫으면 그만'
이 속담은 '내 마음에 원치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들이대도 취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러한 뜻으로만 이해하기에는 사뭇 깊은 철학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속담은 우리의 인생이 가치를 따라 설계하고 살아가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평안감사 관직을 선호한 이유는 평양 도심의 자연경관이 빼어났으며 미모가 출중한 기생들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중국과의 교역을 통해서 풍요로운 고장이었으므로, 관직을 소망하던 사람들 사이에서는 조선팔도 중에서 평안감사가 늘 입에 올랐다고 합니다.
이 속담에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가치는 주관적이라는 점입니다. 인생을 설계하는 가치, 삶에서 추구하는 가치는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감사와 같이 객관적으로 최고의 관직으로 여겨지는 자리조차 누구에게나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안감사의 자리를 마다하는 사람은 대체 어떤 사람이고 이러한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란 무엇일까요? 즉 가치는 어떻게 결정되는지가 중요한 문제로서 우리에게 제시됩니다.

우리는 가치를 따라 살아갑니다. 웃고 우는 이유가 다 가치 때문입니다.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이 안 되면 울고 잘 되면 웃습니다. 나를 웃거나 울게 하는 가치는 어떻게 결정되는 것이기에 주관적이라는 것일까요? 가치는 객관적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안감사 자리를 바라지만 한편에는 그것을 원치 않는 사람도 분명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의 주관적 결정은 이상하게도 마술을 부리는 것 같은 과정을 거치는데 마음을 투입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평안감사 자리에 내 마음을 투입하면 그것은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자리에 투입할 마음의 여분이 없거나 투입하지 않는다면 평안감사 자리도 아무런 가치를 얻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북한이 프랑스 생활쓰레기를 수입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무조건 마음 아파할 일은 아니었습니다. 프랑스의 생활쓰레기가 북한 주민들에게는 생활필수품을 얻을 수 있는 귀중한 원천이 되었다고 합니다. 프랑스 사람들의 마음을 회수한 물건들이 버려지고 쓰레기가 됩니다. 마음이 담기지 않아 쓰레기가 되어버린 물건들이 북한에 오자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받아 소중한 삶의 자원이 됩니다.
또한 “내 자식 귀한 줄 알면 남의 자식 귀한 줄도 알아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모에게 자녀는 객관적으로 똑같이 소중합니다. 그러나 내 자녀냐 아니냐에 따라서 흘러들어가는 마음의 양은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소중하게 느껴지는 정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내 자녀가 다른 사람의 자녀들을 누르고 일류대학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떨어져야만 그 자리는 내 자녀의 자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남의 자녀도 똑같이 귀하게 여긴다면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렇듯 마음을 빼내면 쓰레기가 되고 마음을 투입하면 귀중품이 됩니다. 이것은 황금이나 다이아몬드에도 똑같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황금 자체가 객관적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의 여부는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마음을 투입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내 마음이 담기면 소중하게 되고 담기지 않으면 소중히 여겨질 수 없습니다. 다이아몬드조차도 마음이 담기지 않는다면 길바닥의 돌과 다를 바가 없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7~8절에서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뿐더러 /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이라고 하였습니다. 지금은 해로 여기는 것을 이전에 좋아했던 이유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좋아했던 것들은 여전히 사실로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배설물로 여기게 된 이유는 예수님에게 마음을 다 드렸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좋아했던 것들에 투입할 마음의 여분이 없어진 것입니다. 마음이 가지 않으니 배설물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고라자손이 지은 시의 배경은 다윗 시대로 추정됩니다. 다윗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확보하였고 가장 안정된 정치 경제 상황을 누리던 때입니다. 다윗 통치 때에 이스라엘은 후대의 예수님 시절의 사람들조차도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열망하던 이상적 왕국의 표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저자는 나라가 안팎으로 안정을 누리던 동 시대 선민들에게 세상적인 이익추구와 번영의 허무함을 일깨워 주려고 합니다. 마음에서 구하고 두드리며 추구하는 것이 정말로 괜찮은 것이냐고 의문을 제기하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자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부유함은 능력이 없기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 합니다. 부유함으로는 사람의 생명을 속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지나서까지 돈이 능력을 발휘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가치가 없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관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투입하여 중요하거나 그렇지 않은 것들을 가려냅니다. 즉 인생이란 마음에 투입한 것을 손에 쥐기 위하여 달려가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을 투입할 만한 것인지 아닌지를 어떤 기준으로 결정해야 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평안감사의 자리에 마음을 투자하여 귀중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평안감사 자리에 마음을 투자하지 않아 배설물로 여깁니다. 이 가치를 결정하는 잣대를 오늘 시에서는 죽음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시를 지은 고라자손의 가치관은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고 곧 죽음의 가치관입니다. 죽음의 시점을 통과해서도 여전히 그 능력과 의미를 지니는 것이라면 살아있는 동안에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이라는 잣대를 들이댔을 때에 육체의 죽음을 넘어설 때 안개처럼 사려져버릴 것들이라면 살아있을 동안에 마음을 투자할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고라자손의 가치관으로 보자면 평안감사 자리를 얻는다 해도 육체가 죽는다면, 그 자리가 여전히 기쁨이 되고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평양감사 자리도 헌신짝처럼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참 가치의 기준은 매사에 죽음을 들이댈 때에 밝혀집니다.
자녀가 일류대학에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열망하려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과연 이것이 마음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에 대해 자문하며 죽음의 잣대를 들이대 봅니다. 만약에 자녀가 오늘 죽는다면 일류대학이 무슨 의미가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고, 나 자신에게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심지어 자녀가 대학은커녕 중학교만 나왔을지라도 죽음이라는 잣대를 들이댄다면 살아있는 편이 낫다는 선택을 할 것입니다.
돈 벌려고 애를 쓰지만 과연 마음을 투자할 만한 것인가에 대해 죽음이라는 잣대를 들이대 보아야합니다. 돈 벌기 위해서 쉬지도 않고 일을 합니다. 아내와 외식도 하지 않고 자녀들을 돌

보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시간을 돈 버는 일에 투자를 했는데 그러나 오늘 내가 죽는다면 어떤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 돈은 나의 죽음 이후에는 의미 없기 때문에 마음을 투자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잣대를 들이댔을 때에 죽음 너머까지도 내게 기쁨과 만족을 주는 의미 있는 가치라면 살아있는 동안에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의 죽음과 함께 의미를 잃어버릴 것이라면 살아있을 동안에도 추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오늘 시의 주제입니다.
배우 김주혁 씨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사실 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입니다. 저는 잘생긴 남자의 대표로 장동건 씨는 가끔 떠올리지만 평소에 김주혁 씨라는 분의 이름을 입에 담아 본적도 없습니다. 그만큼 저에게는 친근감 있는 배우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당혹스럽습니다. 어떤 경유로 아파트 층계로 돌진해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사건이 너무나 돌발적입니다. 동료 배우들이 너무나 황망해 할 것이라는 상상을 해볼 수 있을 뿐입니다. 죽음은 이처럼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시간에 찾아옵니다. 그렇기에 죽음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지금 소중히 여기는 것들의 가치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한이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기독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죽음을 들이대야 하는 이유를 하나님 사랑에서 찾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이 세상에 대해서 죽음의 잣대를 들이대고서야 가능합니다. 한 여자가 한 남자의 애인이 되었다면 곧 그 남자를 뺀 이 세상의 35억 명의 남자에 대해 죽는 것을 뜻합니다. 마찬가지로 한 남자가 한 여자의 애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 세상의 35억 명의 여자에 대한 죽음을 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유일한 사랑의 대상으로 모시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몸을 가지고 사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자녀를 대할 때에도 나의 죽음을 들이대는 것입니다. 배우자를 만날 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배우자에 대해 죽는 것입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장에 대해 죽습니다. 사업에 마음을 투자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라에 대해서조차 죽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을 애인으로 가지기 위해서는 다른 모든 이성에 대해 죽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내 애인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몸으로 부딪히는 이 세상 모든 것에 대해서 마음을 죽여야만 합니다. 이렇게 사랑해야 될 가치 있는 대상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만나는 이 세상 것들 중에는 내게 소중한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두 번이나 이방 땅의 왕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기 전에 결정한 사항이었습니다. 타지에 나가면 아름다운 아내를 지킬 수 없을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가는 곳마다 그 고장의 권력자들이 아내를 탐할 것이고 아내를 주지 않으면 아브라함을 죽이고 빼앗을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아내를 잃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내에 대해서 죽은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방 왕들이 두 번이나 아내를 달라고 청했을 때에 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버려진 아내는 그 어떤 훌륭한 남편도 줄 수 없는 사랑을 하나님께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손길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사라에 대해 죽자, 어떤 남편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사라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자녀에 대한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죽은 뒤에도 자녀가 나와 동행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뒤에도 나와 동행하실 수 있는 분은 주님뿐이시고 하나님뿐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그 주님께 마음을 드리기 위해 자녀에 대해 죽으면, 오히려 어떤 훌륭한 아버지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원리이고 원칙입니다. 이 원칙을 따라서 가치를 결정해야 합니다. 육체로 마주대하는 어떤 일에 대해서는 십자가를 붙잡고 죽어야 합니다. 죽음으로서 마음에 가치를 두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15절을 보면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기자는 한 여자를 애인 삼기 위해서는 온 세상의 여자에 대해 죽어야 한다는 죽음의 원리를 하나님께 적용했던 것입니다. 육체의 죽음을 미리 생각하면서 어떤 가치에 마음을 줄 것인지를 판단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세상에 대해 죽음으로 다스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영접해 주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속량해 주시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도 기쁨과 만족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구원이고 속량입니다.
앞서 부자들의 예를 들면서 아무리 돈을 벌어봐야 죽음 이후에는 그것이 기쁨도 만족도 줄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음 이후에도 의미 있는 것을 가치로 삼아 살아가야만 합니다. 나의 육체가 죽은 뒤에도 나와 함께 하실 분은 하나님뿐이시므로 살아있는 지금부터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자는 결심을 노래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

다. 육체로 만나는 세상 것들에 대한 죽음이 아니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대한 마음의 죽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절대불가결의 전제입니다. 이러한 죽음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죽음을 사랑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 어떤 것에도 내 마음을 투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 대해 마음을 중단하면 하나님의 설계대로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평안감사도 저 싫으면 그만'이라는 말씀을 통하여 가치를 결정하는 마음 투입의 양을 죽음으로 다스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제는 십자가의 주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여서 이 세상 모든 대상에 대해 죽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마음의 전량을 투입하여 온전한 복지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체험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